

“스님 향훈 널리 알리겠습니다”

성철 스님 기념관 개관 10월 1일부터 일반에 개방

성철 스님의 생가터가 있는 경남 산청 검외사(주지 원암) 부지에 스님의 수행정신을 이어받은 기념관이 개관한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9월 2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성철 스님 기념관의 세부 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성철 스님 기념관은 유물이 보관·전시되어 있는 타 사찰의 기념관과 달리 성철 스님을瞻배하고 큰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전파하고자 설립된 3층 높이의 현대식 기념관이다. 1층은 성철 스님을瞻배하는 법당으로 2층은 방문객들이 성철 스님이 살아생전 강조하던 수행을 정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마련됐다.

관람객이 들어서는 기념관 입구를 중심으로 양 벽면에는 성철 스님의 출가승과 오도승이 원형 직경 3m의 크기로 조각·설치물로 조성됐다. 또한 성철 스님의 모습들이 담긴 사진 100여장의 타일들이 성철 스님을 추억할 수 있도록 양 벽면에 구성됐다. 이 사진들은 성철 스님이 머물렀던 백련암에서 발견된 사진들을 모은 것으로 성철 스님이 함께 수행했던 스님들의 모습과 수행도량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성철 스님이 평생 동안 수행한 간월암, 검외사, 감용사, 대용사, 해인사 등 24곳의 도량에 대한 안내



백련불교문화재단은 9월 24일 성철 스님 기념관의 세부적인 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 왼쪽은 기념관 전경, 오른쪽은 이사장 원택 스님이 기념관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1층 법당, 2층 수행정진 공간
출가승과 오도승 3cm로 조각
관람객 하루 4백명 이내 제한

가 QR코드로 벽면에 새겨져 있어 본격적인 참배에 앞서 성철 스님의 행적을 방문객들이 따라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성철 스님 기념관 125평의 1층 내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석굴 성불문이다. 좌우 성철 스님의 한글법어가 새겨진 문을 지나면 흰 대리석으로 불사된 성철 스님의 설법상이 장엄하게 설치되어 있다.

설법상 뒤쪽으로는 과거세 연등불, 현재세 석가모니불, 미래세 미륵불을 모셨고 전체적인 석굴 벽면에는 금동 석가모니불 천불을 모셔



석굴 안에 영험을 더할 예정이다. 성불문 외부 벽면 좌측에는 도자기 아미타불 천불 및 관세음보살상, 우측에는 도자기 약사여래불 천불과 보현보살상을 모셔 참배객들이 원하는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님을 모셨다. 또한 금동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은 검외사 신도들이 매월 10만 원씩 20개월 동안 모연할 예정으로 2015년 4월에 회향한다.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성철 큰스님의 선 수행 정신과 선 사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참배 및 수행 공간을 마련했다. 성철 스님 기념관 옆에 요사채를 마련하는 등 수행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고자 한다. 많은 신도들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철 스님 기념관은 오는 9월 30일 개관식을 가지고 임시 개관하며 10월 1일부터 매일 일반 관람객 350~400명을 제한해 참배 및 수행 공간을 개방한다. (055)973-1615 김나영 객원기자

불교 무형문화유산 연구 및 계승에 ‘최선’

통도사 영축 불교문화연구소 출범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불교문화 연구 및 계승을 위한 연구소를 출범했다.

통도사는 9월 24일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영축 불교문화연구소 개소식을 가지고 현판을 공개하며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주지 원산 스님은 “앞으로 통도사를 이끌어 갈 젊은 스님들이 연구위원 소임을 맡은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시기가 약간 늦기는 했지만 통도사 유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질지 바란다”고

밝혔다. 서운암 회주 성파 스님은 “통도사는 우리나라에서 불교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문화의 보고다. 앞으로 우리는 이 불교문화 유산을 어떻게 하면 후대에 잘 전해줄 수 있는가 절실히 고민해야 한다”며 전승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한편 영축 불교문화연구소는 무형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이라는 목표를 토대로 현대적인 개발과 보급에 진력한다. 연구위원으로는 소장인 율원장 덕문 스님을 중심으로 명천, 광우, 병천, 송천 스님을 비롯한 재무, 교무, 포교 국장 스님 등 9



통도사는 영축불교문화연구소 출범식을 9월 24일 가졌다.

명의 통도사 스님들이 활동하게 된다. 또한 영축 불교문화연구소는 경내 성보박물관과 협력하여 무·유형문화재 연구 및 전승에 힘쓸 방침이며 오는 개산대재를 맞아 통도사 고유의 소리와 작법을 발굴한다.

김나영 객원기자

가을밤 환희의 음성공양, 감동의 무대

제18회 울산불교합창축제 9월 25일 열려

부처님께 환희의 음성공양을 올리는 제18회 울산불교합창축제가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9월 25일 울산KBS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계종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회장 김복광)가 주최한 이번 울산불교합창축제는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을 시작으로 범륜사

마야합창단, 정광사 바라합창단 등 총 13팀이 참가했다. 이들은 찬불가 뿐만 아니라 전래동요, 세계민요 메들리 등 다양한 곡을 선정 대중들을 즐겁게 했다. 또한 솔리스트 앙상블 등 초청공연이 준비되어 합창제의 흥을 더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참가한 합창단들 모두가 ‘울산아



울산불교합창축제 공연 장면.

가씨’라는 곡으로 연합공연을 선보였다. 김나영 객원기자

“선후배 한자리에 모여 미래 모색”

운문사승가대학 43차 총동문회 개최

운문사 운문승가대학(학장 홍륜)은 9월 13일 운문사 선영당에서 43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김태)를 개최했다. 회장 김태 스님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는 선후배스님과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회주 명성 스님은 “1850명 졸업생 모두를 사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모교발전을 위한 의견토론과 장학금 전달 등이 있었다. 토론에서는 사회봉사과 스님들의 노후복지 문제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어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남은 주지소임 80여일 동안 사중 스님들과 상의해 총동문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나가겠다”면서



운문사에서 열린 승가대 총동문회 모습.

“소임을 사는 4년 동안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구니 도량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6회 생명나눔 걷기대회 10월 11일

페이스 페인팅·네일 아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 마련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제6회 생명나눔 걷기대회가 10월 11일 토요일 부산 시민공원(향기의 숲)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이식 등록 기관인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회의 정취를 더했다.

걷기대회에는 환우와 가족, 부산 시민(개인 및 단체), 분회 직원 및 기증 회원 등 1천 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걷기 대회를 비롯한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

스를 운영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여는 전화 또는 현장 등록 후 가능하다. 한편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분부는 조혈모세포 및 장기 기증 캠페인, 자살 예방상담, 헌혈증 지원 사업 등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051)853-0429 김나영 객원기자

‘바이로차나’ 청소년 축구단 창단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서 고불법회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주지 밀해)는 9월 14일 육불보전 4층 대강당에서 바이로차나 축구단 창단 고불법회를 열었다. 바이로차나 청소년 축구단은 ‘축구를 통해 중·고등부 청소년 법회의 활성화와 방황하는 사춘기 청소년 불자들의 심성을 개발하고 계층별 포교의 극대화’를 위해서 결성됐다.



바이로차나 축구단 창단 고불법회

축구단장 정허 스님은 고불문에서 “물려받은 심신과 원력으로 전념해야 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주지 밀해 스님은 운영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한 뒤 축사로 “바이로차나는 ‘우 세상 천지에 가득하다’는 뜻이다. 법의 진리는 내 마음

속에 있으니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자기를 잘 지켜 아름다운 인생을 잘 만들어 가자”며 앞으로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배선훈 신도회장은 “진심으로 부처님 품에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발전되어 나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주민들과 함께한 행복나눔음악회

팔공산 송림사 9월 20일 개최

제4회 칠곡군민과 함께하는 송림사(주지 혜성) 행복나눔음악회가 9월 20일 송림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제4회 송림사 행복나눔음악회 공연

송림사 신도회(회장 김한수)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는 경상북도 각기 관장, 대구광역시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천여명 모였다. 송림사 주지 혜성 스님은 “초가을의 시원한 바람에 모두 다 실어 보내고, 아름다운 음악 속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더욱 강인함으로 일상을 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김한수 신도회장은 “지난 여름 우리 사회에 가슴 아픈 많은 일들

을 애도하며 칠곡군민과 한마음 되는 나눔 음악회를 열게 되어 감사하다” 전했다. 2부에서 불교합창단 ‘이앤아이 앙상블’의 공연이 이어져 산사음악회의 정취를 더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국제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땀땀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깨(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는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 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러운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풀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총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지명, 휴암, 종암, 금산, 여승,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